

한일 간 대중음악사(史) 자료 교류를 위한 제안

- 1945년 이전 한국 대중음악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관련하여

김광우

## 1. 소통을 위하여

한일 간의 소통은 제국주의와 식민지라는 역사적 경험으로 말미암아 특정한 계기가 발생할 때마다 감성이 우선하는 대결구도로 급속히 냉각되어 현재까지도 쉽게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로 대중음악의 역사가 왜곡되고 봉인될 만큼 상처가 깊다. 반면 아직은 미약하지만 양국에서 본격적으로 1945년 이전 한국 대중음악을 연구하고 교류하는 그룹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일 간의 소통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 20세기 전반기 조선에서의 음반 산업은 일제의 대표적인 식민지산업의 하나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공통의 연결고리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학문적 검증을 통한 사회적 공론화를 필요로 한다.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치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98년 처음으로 공론화된 일본대중문화의 한국내 개방은 이후 4차에 걸쳐 2004년 1월 방송 등 일부를 제외하고 전면개방이 되었다. 일본 대중음악이나 영화의 상업적인 성공여부는 차치하고라도 한국에서의 일본대중문화의 확산은 이미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인터넷에 개설된 동호회 가입 회원 수는 미국의 대중문화 가입 동호회원 수를 능가하고 있다.<sup>1)</sup> 식민지 경험으로 인하여 한국에서 금기시되었던 일본대중문화는 음지를 탈출하여 양지에 안착하는데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일본에서의 한국 문화현상은 한류스타인 배용준과 보아의 활동으로 대표되며 막대한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화, 드라마의 제작투자 협력을 비롯하여 한국 대중가수의 현지 일본에서 데뷔와 활동이 낫설지 않은 풍경이 되고 있다.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의 2005년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문화상품으로서 한류가 지니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4조 5천억 원에 달하며 그 순위는 중국, 홍콩, 대만에 이어 일본이 뒤를 이었다.<sup>2)</sup>

한류현상의 기존 담론들인 문화제국주의론, 아시아 우호증진론과 더불어 이 두 논리와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지는 철저한 경제논리라는 이데올로기<sup>3)</sup>를 분석하거나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는 것은 다른 연구자의 몫으로 남기고자 한다. 본 발표의 목적은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한일 간의 문화교류 속에서 소통의 창구를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밝히며 상호 이해와 교류, 소통을 위한 방법으로서 대중음악

1) 동아일보, <일본대중문화 개방 9년 한국 속의 '日流' 현주소>, 2007년 4월 24일 기사 참조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04240162>)

2) 한겨레, <한류경제효과 4조 5천억 원에 달해>, 2005년 3월 14일 기사 참조 (<http://www.hani.co.kr/section-009000000/2005/03/009000000200503141905995.html>)

3) 백원담, 『동아시아의 문화선택, 한류』, 펜타그램, 2005, pp 186~191

속에서 하나의 돌파구를 제안하는데 있다.

한국에서 일본 음악은 완전 개방<sup>4)</sup>되어 해외 가수 중 가장 활발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의 가수들 또한 마찬가지다.<sup>5)</sup> 일본 문화자본의 치밀한 지역화 전략의 일환이라는 비판적인 시각<sup>6)</sup>이 존재하지만 이처럼 현재 한일 간의 대중음악 교류는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 또한 사실이며 그 시초는 이미 20세기 전반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20세기 전반기는 일제의 음반산업이 조선으로 진출하여 시작된 한국의 음반 산업 개화기인 동시에 대중가수들이 일본현지에서 레코드 취입 및 공연 활동을 시작한 시기이다. 광복이후에도 일본에서 괄목할 만한 활동을 하였거나 귀화하여 스타가 된 한국인들이 많다는 것 또한 통설이다.<sup>7)</sup> 그러나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한국의 역사적 경험은 때로는 논리를 무시한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출되며 한국의 연구자들은 이 시기의 한국 대중음악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석론과 자생론의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바탕에서 한국의 대중음악은 더러는 시대에 따라 왜곡되거나 철저히 봉인되어왔으며,<sup>8)</sup> 일본 또한 선별적인 기억과 망각 속으로 밀어내 거리를 두었다.<sup>9)</sup> 소통과 교류는 일방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별적인 접근이나 자의적인 해석을 가하는 것으로는 다가서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의 한일 간의 대중음악을 이해하고 미래의 발전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밀접하게 연관되는 1945년 이전 한국의 음반 산업을 출발선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식민지시기 음반 산업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척되어 주요한 성과물을 생산해왔다.<sup>10)</sup> 그러나 국악분야에 집중되어 대중음악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양적인

4) 대중가요공연은 2000년 6월, 음반은 2003년 9월에 완전 개방되었다.

5) 한국에서 일본 가수의 공연은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애플로, 아라시, 고토마키, 각트, 윈즈 등이 1회 이상 콘서트를 가졌거나 재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2006년 11월에 열린 '아라시'의 공연 예매 사이트에는 15만명의 동시접속자가 몰리는 등 1시간 만에 1만 2천장의 티켓이 판매 완료되었으며(머니투데이 2006년 10월 19일 기사) 2008년 6월 1일 '모닝구 무스메'의 공연은 관객의 연령층이 1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높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뉴스엔 2008년 6월 2일 기사) 한편 '보아'의 일본 음반판매순위는 데뷔 이후 줄곧 상위에 기록되면서 대표 한류스타로 자리를 잡고 있다.(마이데일리 2008년 4월 7일 기사)

-머니투데이 (<http://star.moneytoday.co.kr/view/stview.php?no=2006101909310776848&type=1&SBV1>)

-뉴스엔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806020904221002](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806020904221002))

-마이데일리 (<http://www.mydaily.co.kr/news/read.html?newsid=200804071032391130>)

6) 백원담, 『동아시아의 문화선택, 한류』, 펜타그램, 2005, pp 70~75

7) 손목인은 광복이후 일본에서 '카스바의女'를 작곡하여 크게 히트하였으며,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는 1948년생 미야코 하루미(都 はるみ)는 본명 이춘미(李春美)로 재일교포 3세로 알려졌다. 미소라 히바리(美空ひばり), 후랑크 나가이(フランク永井) 등 본인의 부인이나 명확한 의사의 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계로 알려진 상당수의 대중가수가 있다. '일본 연예계 70%는 한국계?'라는 통설이 기사화(머니투데이 2006년 8월 14일)될 만큼 관심을 끌고 있다.

8)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편찬의 방법에 의하면 대중가수의 경우 자발적인 참여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군국가요를 취입한 곡수(4곡 이상 친일인사 규정)에 따라 친일인사로 표기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한다. 또한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감성에 우선하는 '왜색'이라는 덧칠로 금지곡이 되기도 했으며 월북 작가는 이유로 해당 작품이 오랫동안 봉인되었다.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로 제약된 대중가요의 관리대책이 반드시 실효를 얻었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새로운 역사성을 덧칠하여 민족가요로 왜곡되거나 일부 가사가 개작되어 대중에게 유통되면서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9) 아마우치 후미타카, 「20세기 전반기 음반 산업에 관한 한일간 역사서술 개관」, 『아시아 대중음악 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연세대학교 상남포럼 국제학술회의, 2005, pp 9-10

10) '한국고음반연구회'를 축으로 다수의 주요한 성과를 발표했다. 고음반연구회는 한국음악 음향자료의 연구 및 보존에 관심을 기울이며 1991년 '한국음반학'을 창간하여 이론적 토대 구축, 고음반의 복각에 업적을 남기고 있다.

결과물이 미약하다.<sup>11)</sup> 이는 대중음악이 연구 분야로 편입된 지 오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하겠으나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실물 음반 등의 근거 자료 확보 및 정리가 어렵다는 현실이다. 음반은 소비재로서 영속성이 길지 않고 파손의 위험과 보존의 어려움이 상존한다는 특성으로 한 세기가 지난 현재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이는 고비용과 자료의 독점<sup>12)</sup>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보다 광범위한 연구자의 참여와 한일 간의 대중음악 이해, 소통을 위해서 20세기 전반기(1945년 이전) 한국대중음악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 2. 1945년 이전 한국 대중음악 데이터베이스(DB) 구축

1945년 이전에 발표된 한국의 대중음악은 약 5000여곡으로 추산된다.<sup>13)</sup> 현재까지 남아있는 이 시기의 각 음반사 자료를 근거로 그 규모를 예측할 수 있다. 음반사에서 발표한 가사지에는 일련의 음반번호와 저작자, 가창자 등의 정보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인되었던 과거의 대중가요 역사로 인하여 현재 저작자 등의 오기는 물론 왜곡된 가요사가 정설처럼 대중에 유포되고 있다. 기존의 회고담류에 의한 가요사를 밀어내고 구체적인 근거자료(음반, 출판물 등)를 제시하여 1945년 이전 한국가요를 다룬 성과로 박찬호의 『한국가요사』<sup>14)</sup>가 주목받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도적으로 봉인되었던 조명암(趙鳴岩, 1913~1993), 박영호(朴英鎬, ?~1952) 등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거론되었으며 이전까지 개작 등을 통하여 작가가 뒤바뀌고 수십년이 흐르는 동안 고착화되었던 가요사의 왜곡과 저작권자의 오류의 복원<sup>15)</sup>에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신나라레코드에서 발매된 “유성기로 듣던 가요사” 시리즈로 인하여 잊혀졌던 유행가의 복원은 물론 구전가요로 알려진 노래 또는 군가로 사용된 군국가요<sup>16)</sup> 등 왜곡된 대중가요사의 일단을 살피게 되었다. 1945년 이전 한국대중가요의 DB구축은 가요사는 물론 한일 간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

11) 이전의 1945년 이전 대중가요에 관한 출판물이 관련업계 인물들의 증언에 의존한 한계로 인하여 객관적 검증의 절차가 부족하였다면 박찬호의 『한국가요사』(1987)는 1차 사료의 정확성을 근거로 출발한 성과라 평가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면서 야마우치 후미타카, 이준희, 장유정 등이 다양한 각도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12) 현재 중고음반시장에서 거래되는 SP음반의 최저단가가 5만 원대이며 유명가수의 음반은 40만원이 넘게 형성되어 연구자의 개인적인 비용지출이 심각하고 이런 이유로 수집한 자료의 공유 또한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13) 이준희의 조사자료 “광복이전 유행가”에 따르면, <유행가> <가요곡><유행소곡> <째즈송> <만요> <신민요> 등의 곡종으로 발표되어 대중가요로 분류할 수 있는 곡수가 5000여곡에 이른다.

14) 『한국가요사』는 일본어로 먼저 출판(1987, 도쿄 昌文堂)되었고 1992년에 한국어로 번역 출판(현암사)되었다. 손태룡은 『음악이란 무엇인가』(2006, 영남대학교출판부)에서 ‘한국 노래연구의 새 지평을 연 결실’로 이 책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15) 저작권자가 뒤바뀐 대표적인 작가로 월북한 조명암을 들 수 있다. 1945년 이전 한국의 유행가 중 가장 많은 히트곡을 작사한 인물 중 하나였으나 월북이후 정치적인 이유로 금지가요로 묶였고 1988년 민주화항쟁 이후 비로소 해금되었다. 오랫동안 뒤바뀌었던 저작권자 복원과정에서 법정소송이 진행되기도 하였으며 실물 음반 등 근거자료가 제시될 때까지도 가요계 인사들의 부정확한 증언이 계속 되었다.

16) 이런 예는 흔치않게 발견된다. 김부자의 노래로 널리 불린 “갑돌이와 갑순이”는 구전민요로 알려져 왔으나 1939년 김다인 작사, 전기현 작곡의 “온돌야화”가 원작이며 병영가요로 불린 “아들의 혈서”는 일제의 군국가요(조명암 작시, 박시춘 작곡, 백년설 노래, 1942, okeh 31093)를 가사만 바꾸어 부른 경우이다.

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2-1. 업계동향

2000년 이후 음반업계의 불황은 대중가요 음반의 복각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신나라 레코드에서 2000년 1월 광복이후 유행한 대중가요를 중심으로 “유성기로 듣던 가요사 두 번째”를 발매한 이후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간간히 국악음반을 중심으로 업계, 학계에서 SP 복각음반이 발표되고 있으나 시장성이 없어 무료 배포 혹은 학술적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초반 발매당시 히트곡이나 주요인물(가창자), 역사성(최초발매 등 의미부여하기 작업)에 편향되어 전체적인 규모와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 오히려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20세기 전반기 대중음악 음반이 활발하게 복원되어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20세기 전반기 대중음악에 대한 업계의 복원현황은 크게 음반사와 인터넷 음악서비스 업체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음반을 발표한 회사로는 “신나라 레코드”와 “서울음반”이 있으며 인터넷 음악서비스는 “가요114”<sup>17)</sup>가 대표적이다. 업계의 동향으로 분류하기 애매하지만 떼어놓을 수 없는 유성기 음반 음원의 원천지로 “콜럼비아레코드(Columbia Records)”와 “빅터레코드(Victor Records)”가 있다. 전체규모가 복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상당수 음원이 정리되어 있으며 곡정보가 체계화되었다.

먼저 음반사의 대중가요 복각음반 현황은 신나라레코드의 “유성기로 듣던 가요사”와 “유성기로 듣던 불멸의 명가수”가 있으며, 서울음반의 “빅터유성기 유성기 원반 시리즈”가 있다. 기타 SKC에서 발매한 “여명의 노래”가 있으나 다양한 분야를 혼재하고 단발성에 그쳐 논외로 한다.<sup>18)</sup>

유성기 음반의 복각은 신나라레코드에서 1988년에 “관소리 5명창”(음반번호 SEL-RO135, 성음/신나라)을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이어 1990년 “불멸의 한국가요”(음반번호 SEL-RO 595, 성음/신나라)를 발매하면서 대중음악의 복각이 본격화되었다. 신나라레코드는 2000년 이후 음반 산업의 불황 속에서도 관소리와 민요 등 국악부문을 지속적으로 복각하여 총 110여장의 음반을 발매하였다.<sup>19)</sup> 대중가요 음반은 “유성기로 듣던 가요사”(광복이전 가요, 10CD, 음반번호 SYNCD0015~24, 1992년), “유성기로 듣던 불멸의 명가수”(광복이전 가요, 23CD, 음반번호 SYNCD-144, 1996년)와 “유성기로 듣던 가요사 두 번째”(광복이후 가요, 12CD, 음반번호 NSSRCD-012, 2000년)를 포함 동요, 가곡, 연극 등 장르를 세분화하여 총 1000여곡

17) 80년대 이전 발매된 가요를 중심으로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http://www.gayo114.com/>)를 하고 있다. LP와 SP를 직접 복각하여 서비스하기 때문에 다른 음악사이트에서 들을 수 없는 곡이 많다.

18) "1910~1945 여명의 노래"(음반번호 SKCD-C-0417)는 한국고음반연구회의 기획으로 SKC에서 1991년 10월에 복각 제작되었다. 1CD로 총 109쪽이 해설서와 유행가, 민요, 동요를 비롯한 19곡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19) <연합인터뷰> 신나라레코드 정문교 대표

<http://media.daum.net/entertain/others/view.html?cateid=100030&newsid=20030727060241225&cp=yonhap>

(중복곡 포함)을 복각하였다. 복각과정에서 특기할 점은 "유성기음반총람자료집"<sup>20)</sup>의 발간과 전폭적인 음반소장자의 지원을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자체보유 음반은 물론 국내외의 상당수 개인 소장자 음반이 동원되었으며 이런 인적 네트워크는 이후로도 오랫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sup>21)</sup> 여기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유성기 음반 애호가(소장자를 비롯한 소리 애호가)는 디지털 음악의 보편화로 인한 음악시장의 변화에 따라 인터넷 음악 사이트(가요114)를 중심으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의 20세기 전반기 대중음악에 관한 관심과 연구는 신나라레코드의 복각음반에 의해 상당부분 의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빅터 시리즈”로 대변되는 복각음반을 발매한 서울음반은 신나라레코드와는 다른 방식으로 음반을 복각하였다. 신나라레코드에서 발매한 음원이 대부분 유통되는 음반을 복각한데 반해 서울음반은 일본의 빅터레코드<sup>22)</sup>에서 마스터 원반을 직접 수입하여 복각하였다. 26장의 복각음반을 발매하였으나 대부분 국악음반에 집중되었고 각각 2매로 발매된 “30년대 유행가 빅터가수선집”(2CD, 음반번호 SRC-1233, 1994년) “30년대 신민요”(2CD, 음반번호 SRC-1232, 1994년)와 “30년대 만요”(1CD, 음반번호 SRC-1225, 1995년)를 통해 5매 72곡과 “30년대 동요”(2CD, 음반번호 SRC-1107, 1995년) 32곡을 포함하여 총 발매곡수는 104곡에 불과해 신나라에 비하면 양적으로 매우 빈약하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양적으로 풍부한 음원을 확보하고서도 복각음반을 소량으로 발매하고 그친 점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반면 마스터 음원을 사용하였기에 감상하기에 양호한 음질을 보장하였고 더불어 유성기음원에 관한 막연한 선입견을 극복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이용자가 가장 쉽게 한국의 20세기 전반기 유행가를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음악 사이트에서 CD로 발매(유성기음반 복각)된 대중가요를 감상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내용면에서 앞에서 살핀 신나라레코드와 서울음반에서 발매한 CD에 그치고 있어 차이가 없지만 “가요114” 서비스는 독특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음반사에서 발매한 복각음반 외에 유성기 음반을 직접 복각하여 감상할 수 있게 서비스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유성기 음원 또한 2000곡을 넘는다. 유성기 음원의 복각은 개인소장자가 보관 중인 음반을 복각한 것이며 이런 인맥은 신나라레코드와 연계를 맺던 애호가들과 겹친다. 음반 산업의 불황과 인터넷 음악 산업의 약진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으로 가요114는 유성기음반의 복각을 진행하여 “남인수선집”(8CD, 남인수팬클럽, 2001) “백년설선집”(4CD, 백년설추모사업추진위원회, 2004년) “이난영-귀향의 노래”(1CD, 음반번호 GSPCD-0003, 이난영기념사업회, 2006년)와 국악음반 “동편제열전”(1CD, 음반번호 GSPCD-0004, 구례군청, 2007년)을 포함하여

20) 김점도 편저로 2000년에 발행되었다. 1907년부터 1943년까지 발매된 방대한 양의 음반을 다루고 있으나 아쉽게도 누락된 내용과 기록의 오류 등이 지적된다.

21) 신나라레코드에서 복각음반 실무를 담당하던 이태규의 퇴사 이전까지 형성되었던 회사와 개인소장자 등의 인맥은 이후 복각음반 발매의 부진과 담당자의 퇴사로 인하여 현재는 왕래가 활발하지 못하다.

22) 1945년 이전 한국에서 활동한 5대 메이저 음반사는 폴리돌, 오케, 콜럼비아, 태평, 빅터이다.

총 14CD 200여곡을 발매하였다. 또한 실물자료(음반, 출판물, 사진 등)의 디지털화에도 관심을 집중하여 웹사이트에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나 5000여곡의 유성기 음원을 비롯한 음반 이미지, 노래책, 사진 이미지 등을 축적하고 있어 한국의 1945년 이전 음악을 감상하고 복원시키는 새로운 통로가 되고 있다.

현재 한국 내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활동은 하지 않고 있지만 상당수의 유성기 음원을 통해 논의되고 있는 회사가 콜럼비아레코드와 빅터레코드이다.<sup>23)</sup> 20세기 전반기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음반을 발표한 5대 메이저 회사이기도 하지만 다른 회사와의 차이점은 당시의 마스터 원반이 보존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두 회사에서 1945년 이전 한국어로 발매한 2000곡 이상의 음원이 국내에 들어와 있으며 국악부문은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있다.<sup>24)</sup> 아쉬운 점은 시장성의 부족과 음원의 유통경로에 대한 미흡한 점<sup>25)</sup>으로 인하여 공개가 미진하다는 것이다.

## 2-2. 연구 성과와 동향

20세기 전반기 한국 대중음악에 대한 학계의 연구 성과는 20여년 동안 상당히 풍성해졌다. 많은 연구자들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DB구축을 위한 기초자료의 정리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유성기 음반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태동은 1989년 한국 고음반연구회의 창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모임이 주축이 되어 본격적인 유성기 음반의 복각<sup>26)</sup>이 진행되면서 “유성기음반가사집”<sup>27)</sup>이 출간되었고 국악분야에 대한 기초자료의 정리는 상당히 진척되었다. 서적 출판뿐만 아니라 공적 자금의 지원 아래 전통예술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DB구축에도 성과를 얻고 있으며 향후 공개를 앞두고 있다.

한편 대중음악의 DB구축 또한 국악부문에 비해 미진하지만 차분하게 진척되고 있다. 1945년 이전 한국 대중가요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이준희의 “광복 이전 유행가” 목록이 있다. 공간된 자료는 아니지만 2000년에 인터넷<sup>28)</sup>을 통하여 공개되었다. 실물과 신문광고를 참조한 이 목록은 5000여곡에 이르는 방대한 양과

23) 콜럼비아레코드는 주식회사 일본축음기상회로 1910년 설립되었으며 1911년부터 한국어 음반을 발매하기 시작하였고 1943년까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음반을 발매하였다. 빅터레코드는 1927년 일본빅터축음기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28년부터 1943년 까지 한국어 음반을 발매하였으며 규모는 3위를 기록하였다.

24) 국악음반박물관의 소장자료를 살펴보면 국내에 유입된 유성기 음원의 규모는 콜럼비아레코드 2000여곡과 빅터레코드의 300여곡으로 파악된다. 국악부문은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전통예술 아카이브 구축(동국대, 국악음반박물관)을 통하여 DB화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공개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음원의 소유권은 물론 저작권 문제도 남아있다.

25) 빅터레코드의 음원은 서울음반을 통하여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파악되나 콜럼비아의 음원은 KBS의 수입설 등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유통경로가 확실하지 않다. 공식 발매 전 음원 정리과정에서 제한적인 방법으로 몇몇의 연구자 등에게 전체규모가 공개된 것으로 보인다.

26) 신나라레코드와 서울음반의 유성기 음반 복각은 거의 고음반연구회의 자문과 감수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고음반연구회의 복각음반은 국악부문에 집중되었고 대중음악은 학계인사가 아닌 소장자, 애호가 자문이 바탕이 되었다.

27) 민속원에서 1990년 1,2집을 시작으로 7집까지 출간되었다.

28) 인터넷 사이트 “가요114”(http://www.gayo114.com)에 2000년 1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유행가시대”를 연재하면서 동 사이트내 “남인수팬클럽”을 통해 공개하였다.

높은 정확성으로 현재도 유용한 자료로 인용되고 있다. 이준희는 이후 “사의 찬미 (외)” “유성기음반 가사집 7”<sup>29)</sup>을 내놓아 20세기 전반기 한국 대중음악 연구에 대한 충실한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

연구를 위한 1945년 이전 한국의 음악 DB구축은 국악과 대중음악으로 나뉘어 일정한 성과를 얻고 있기에 이러한 결과를 총체적으로 취합하는 DB구축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악부문이 활발하게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취합하기 위해서는 대중음악의 DB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여기에는 텍스트와 이미지 자료뿐만 아니라 음원의 감상까지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 2-3. 정책동향

한국의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실현을 목표로 설정된 일련의 문화정책은 문화를 산업적인 측면에 과중하게 치중하였다는 비판과 함께 한편으로 자원의 부재와 경제위기 속에서 타당한 국가기획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sup>30)</sup> 문화산업 진흥의 맥락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음악 산업 분야의 주요정책으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sup>31)</sup>에서 수행하는 “KMDC(Korea Music Data Center) 구축” 사업을 주목할 수 있다. 총 5개년 사업으로 기획되었으며 2008년 현재 3차년도 사업수행을 앞두고 있다. 사업목적을 살펴보면 대중음악 DB구축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 디지털 음악산업 환경에 필요한 음악관련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류하여 온오프라인 자료관을 구축하고 공공 서비스하여 음악 산업 발전의 서비스 인프라 조성
- 한국음악의 음원 및 현물에 대한 체계적인 표준메타 DB 및 정보를 업계, 학계 및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각 음악서비스 사업체 DB 사이의 호환성과 표준화를 유도하고, 산업 및 음악콘텐츠의 대외경쟁력을 향상
- 식별표시가 부착된 음악 표준메타DB를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DB표준화 지원(매핑지원)을 하고 이를 통하여 빠른 음악업계 유통DB의 표준화 유도 및 향후 유통의 투명성 확보

디지털 음원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한 음반 산업의 환경 변화와 함께 기초정보의 오류와 부재<sup>32)</sup>는 물론 체계적인 기록과 보존의 시스템이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

29) 전자는 이영미와 공동으로 2006년 범우사, 후자는 장유정과 함께 2008년 민속원에서 출간하였다. 민속원의 『유성기음반 가사집』은 고음반연구회가 주축이 되어 1,2집을 발간한 후 시리즈로 기획되어 총 7권이 출간되었고 가사지 원본 또는 복사본을 그대로 담고 있다.

30) 백원담, 『동아시아의 문화선택, 한류』, 펜타그램, 2005, p 212~232

31) 한국문화콘텐츠산업의 최대 약점으로 전반적인 영세성, 제작환경과 유통구조의 열악성, 전문적인 국내외 마케팅 경험부족, 국제수준의 기획 및 창작인력 부족, 유관산업과의 연계부족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한 대응과 지원책 마련에 부심한 결과 문화산업 전략과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기 위하여 2001년 설립되었다.

32) 저작권협회에서 관리하는 저작자(작사, 작곡) 정보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은 협회는 물론 관련단체, 업계까지도 공유하는 사실이다. 음원의 제작자 또한 오류가 많다. 음원제작자협회에서 징수하는 음원사용료 내역에는 가수와 곡목이 일치하는 이중 음원에 대해서도 제작자가 동일하게 적용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

적인 사업으로 평가된다. 음원 및 현물에 대한 체계적인 표준메타 DB의 구축은 자료의 소실로 인하여 만감이 있으나 학계와 업계, 그리고 이용자의 공통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요인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은 표준메타 DB의 정확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현물에 기록된 정보를 단순하게 옮기는 것으로는 정확한 정보의 구축이 힘들다는 것이 음반의 특성이자. 앞부분에서 살핀 것처럼 특정시기의 한국대중음악의 역사는 왜곡되거나 봉인되었던 이유로, 60년대 이후 LP 등으로 재취입된 1945년 이전의 대중음악은 LP음반에 수록된 정보에 의존할 수 없는 취약점이 있다.<sup>33)</sup> 따라서 표준메타 DB의 구축은 음악 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업체가 참여해야 하며 학계의 검증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문화콘텐츠진흥원은 별도로 대중음악사 발간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 김창남, 백원담의 연구책임하에 일제강점기에 대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였다.<sup>34)</sup> 대중음악사 발간은 총 5개년 사업으로 기획되었으며 각 사업별 시기구분을 지어 연구, 조사될 예정이다.

#### 2-4. DB구축의 범위와 운용방법

1945년 이전 한국 대중음악 DB구축의 범위와 운용방법은 보다 세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국악부문이 현재 별도로 추진되고 있기에 국악을 포함할 것인지 포함한다면 어느 한계까지인지 구분을 지어야 하며 이는 예산의 중복투자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한편으로는 사업주체의 차이로 인하여 운용방법의 문제가 상이할 수 있다는 예상도 가능하다.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그리고 공개라면 일반 대중까지 포함되는지는 물론 음악 감상이 가능한지 또는 원문 자료의 다운로드 여부까지 논의 되어야 한다.

운용방법에 대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하고 DB구축의 범위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범위란 국악과 가요 등 장르를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 음반 등에 수록된 각 항목(제목, 저작자, 이미지 등)으로 정한다. 이 항목은 AMG<sup>35)</sup>의 분류방식을 참조하여 국내사정을 감안하였다.

KMDC 사업의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계, 업계는 물론 일반대중까지 포함하는 공공서비스를 염두에 둔다면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하나는 음반 실물이며 다른 하나는 관련된 출판물이 그것이다. 먼저 음반에서 수록 가능한 항목은 음원과 서지정보이다. 유성기 음반 라벨에 수록된 서지정보는 창작물의 저작자 정보( 제목, 작사, 작곡, 편곡, 연주, 가창)와 음반정보(음반사, 음반번호, 주소) 등이 있으며 서지정보와 음원은 각각 디지털<sup>36)</sup>로 저장할 수 있다. 유성기 음반의

---

과 음원이용자의 편리를 위하여 “저작권라이선스시스템”(http://music.clms.or.kr/)이 개발되어 저작물 사용현황과 사용계약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33) 월북한 작가들의 작품은 대부분 저작자가 뒤바뀌어 재취입되었다. 조명암 작사의 곡은 개사과정에서 많은 곡들이 추미림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추미림은 반야월(1917~, 본명 朴昌靑)의 많은 예명 중 하나이다.

34) 두 개의 주제로 진행된 사업에서 “대중음악사 발간을 위한 DB”는 백원담의 연구책임과 신현준, 이준희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일제강점기 대중음악사 발간을 위한 연구”는 김창남의 연구책임과 장유정, 최지선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연구결과를 합본하여 출간될 예정이다.

35) Macrovision Corporation에서 1995년 오픈한 사이트(http://www.allmusic.com/), 방대한 양의 음반정보와 효율적인 분류방식으로 이용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서지정보가 중요한 점은 이후 LP, CD로 재취입된 음원의 올바른 저작자 정보를 수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출판물에서는 가사집<sup>37)</sup>과 신문광고<sup>38)</sup>, 음반사 녹음일지<sup>39)</sup> 등이 있다. 기타 잡지, 신문의 관련기사가 참고될 수 있다. 출판물은 텍스트와 이미지로 디지털화 할 수 있으며 음반과 출판물을 바탕으로 구성할 수 있는 메타 DB의 항목은 필수정보와 부가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유성기 음반정보에서 LP, CD 정보까지의 확장을 염두에 두어 세분화하고 사전에 각 항목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 2-4-1) 필수정보

- 필수정보는 부가정보의 일부 내용과 중복됨
- 부가정보란에서 중복되는 항목은 \*로 표시함

구분	항목	내용
필수정보	제목 <sup>40)</sup>	표기법에 따름
	곡종 <sup>41)</sup>	음반에 표기된 당시의 분류방식에 따름
	장르 <sup>42)</sup>	트롯트, 재즈, 블루스, 민요, 판소리 등
	연도 <sup>43)</sup>	발매년도
	형태	가창(독창, 합창), 연주곡
	실연	가창, 연주 아티스트(여러명일 경우 모두 표기)
	작사	아티스트(여러명일 경우 모두 표기)
	작곡	아티스트(여러명일 경우 모두 표기)
	편곡	아티스트(여러명일 경우 모두 표기)
	반주	아티스트(여러명일 경우 모두 표기)
	상표 <sup>44)</sup>	음반사 상표(별도의 상표가 없을 경우 음반사)
	번호 <sup>45)</sup>	음반번호
	비고 <sup>46)</sup>	해당곡과 관련한 사항(금지곡, 정치적 사건 등)

36) 서지정보는 스캔하여 원본 사이즈로 이미지화(JPG 등)하고 음원은 복각하여 사운드(WAV)를 저장한다.

37) 음반사에서 출간한 가사집과 출판사에서 출간한 가사집의 두 종류가 있다. 후자는 악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저작자 정보가 누락되거나 오기인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정확성은 음반사 출간의 가사집이 우선한다.

38) 신보광고는 음반의 기본정보는 물론 발매시기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다. 보통 발매월을 포함한 광고제목(예, 정월신보, 2월신보)이 있다.

39) 녹음일지에는 음반에 표기된 예명의 원저작자를 알 수 있는 근거가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40) 발매당시의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제목의 오기가 있을 경우 바로잡아 현대의 표기법으로 병기한다.

41) 가요곡, 유행가, 재즈송, 신민요, 남도잡가 등으로 분류된다.

42) 1945년 이전 대중음악에 관한 장르는 아직 통일된 견해가 없다. 장유정은 “일제강점기 한국 대중가요 연구”(박사학위논문, 2004)에서 크게 ‘유행가’ ‘만요’ ‘신민요’ ‘재즈송’으로 분류하였으며, 선행연구로 이동순, 김효정의 분류가 있다.

43) 파악가능한 연월일을 모두 표기한다. 발매일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음반번호의 상관관계로 유추가능하더라도

2-4-2-1) 부가정보 / 아티스트, 인물

- 작사, 작곡, 편곡, 가창, 연주, 피쳐링 참여자
- 음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대중음악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 (제작자, 악극단 단장 등)

구분	항목	세부항목						
아티스트	이름1*	솔로			그룹			
	이름2 <sup>47)</sup>	예명			그룹명변경			
	활동분야	창작, 가창, 제작자 등으로 분류						
	생	출생			결성			
	몰	사망			해체			
	구성원 <sup>48)</sup>				보컬/연주자 등			
	데뷔년도 <sup>49)</sup>							
	활동연대 <sup>50)</sup>	10년 단위로 구성						
	수상내역 <sup>51)</sup>	수상경력(방송대상, 신문사, 가요제 등), 기타						
	바이오그래피	학력/경력/가족관계/기타						
	장르	주요 활동 장르						
	관련아티스트	함께 활동한 아티스트, 소속 아티스트						
	참여앨범 <sup>52)</sup>	정규, 편집 앨범 외						
	디스코그래피	정규	편집	DVD/VHS	기타(드라마, 영화 등)			
	곡목	대표곡	취입곡	피쳐링	작사	작곡	편곡	연주

2-4-2-2) 부가정보 / 앨범

- 유성기 음반의 경우 별도의 타이틀이 없으므로 양면의 곡을 타이틀로 동시 병기

표기하지 않는다.

- 44) 하나의 음반사에서 제비표, 남대문표 등 단일 혹은 장르별로 여러개의 상표(label)를 사용하거나 별도 상표를 가지지 않고 시기별로 로고(Logo)만을 달리하기도 한다.
- 45) 음반번호가 대표적이나 SP에서 녹음번호, 혹은 보조번호가 병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LP에서는 한동안 심의 번호가 따로 있었고 현재도 곡번호를 따로 병기하기도 한다.
- 46) 근거자료가 확실할 경우에만 표기(근거자료 표시)한다.
- 47) 예명을 여러 개 사용하거나 그룹명이 변경된 경우 모두 표기, 단 활동의 연속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룹을 재창단하거나 활동 중인 그룹에서 일부가 이동하여 다른 그룹을 창단한 경우 별도 표기한다.
- 48) 개인이 아닌 경우 구성원 모두를 기록하고 중간에 멤버가 변동된 경우 1기, 2기 등의 분류를 통해 구분한다.
- 49) 음반 데뷔와 무대 데뷔가 다른 경우가 많음. 음반 데뷔를 기준을 하고 무대 데뷔는 바이오그래피에서 기록한다.
- 50) 음반, 무대활동을 하지 않은 시기에 발표된 편집앨범, 기타 미공개 음원 등의 시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 51) 바이오그래피와 중복되는 내용 중 두드러진 활동으로 인한 수상경력, 신문·잡지 등의 선정내용(인기투표 등)을 기록한다.
- 52) 피쳐링 또는 작사, 작곡, 편곡, 연주 앨범을 포함한다.

구분	항목	세부항목						
앨범	타이틀*							
	앨범소개 <sup>53)</sup>	앨범개요, 특기사항						
	아티스트*	해당 앨범에 참여한 모든 아티스트						
	구분	SP <sup>54)</sup>	LP <sup>55)</sup>	TAPE	CD <sup>56)</sup>	DVD	EP	Digital
	분류	정규	편집	싱글	기타(라이브등)			
	대표곡	유성기 음반의 경우 양면곡 전부 표기, LP, CD까지 확장 개념						
	장르*							
	발매일*							
	음반사*							
	기획사							
	음반번호*							
	수록곡	tracks						
	크레딧	제작자	연주자	사진	디자인	기타		
	관련앨범	연작앨범, 비슷한 유형의 참여앨범(극, 영화, 프로젝트 등)						

### 3. 맺음말

1945년 이전 한국 대중음악의 DB구축은 연구자를 비롯하여 일반 이용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용자 층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각 항목에 포함되는 아티스트, 음반사 등에 의해서 한일 간의 연결고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5대 메이저 음반사가 모두 일본에 본사를 둔 회사이며 이런 이유로 소속된 많은 아티스트가 한일 양국에서 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음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일본인 중 우리 대중음악에 영향을 미친 이는 작곡분야의 고가 마사오(古賀政男, 1904-1978), 에구치 요시(江口夜詩, 1903-1978), 다케오카 노부유키(竹岡信幸, 1907-1985) 등과 편곡분야의 오키야마 테이키치(奥山貞吉, 1887-1956), 니키 타키오(仁木他喜雄, 1901-1958)가 대표적이며<sup>57)</sup>, 반대로 일본에서 활동한 한국인으로는 채규엽(蔡奎燁, 1906?-1949?), 이난영(李蘭影, 1916-1965) 등 당대의 톱스타가 망라된 상당수의 가수가 있다.<sup>58)</sup> 이러한 현상적인 결과를 토대로 한일 간의 대중음악에 대한 교류와 소통이 보다 세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인적교류의 근원과 결과는 물론 세계음반산업의 맥락 속에서 일본과 한국의 음반산업 역할, 그리고 수용자의 이해를 분석해야 한다. 단지 특정한 몇마디의 멜로디나 인물에 의해 20세기 전반기의 한국

53) 특기사항에는 초반, 재반, 해적반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54) 10인치 음반이 보편적이지만 12인치 SP반이 생산되기도 했다.

55) 일반적으로 7인치, 10인치, 12인치 음반으로 구분된다.

56) 1CD 이상의 합본 앨범과 VCD, DVD 포함 앨범으로 구분된다.

57) 이준희, “유행가 시대(48) - 지울 수 없는 이름, 古賀政男”, 가요114

58) 2007년 제3회 세계한국학대회에서 발표한 이준희의 「일제시대 일본 대중가요 음반에 나타난 한국인의 활동」에서 채규엽을 위시한 20여명의 구체적인 활동이 언급되었다. 박찬호와 야마우치 후미타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일 대중가요 관계사를 살핀 이글에서 필자는 문화의 일방적인 흐름에 대한 기존의 평가를 경계하며 객관적인 음반정보를 바탕으로 정당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중음악을 선불리 평가하는 일은 정당하지 못하다.

거대한 담론의 하위 속에서 부합하는 자료만을 선택하거나 반대로 어느 한 분야의 단순한 수치 통계만으로 당대를 평가하는 방법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식민지 사업의 일환으로 평가받는 일제의 음반산업 또한 세계적인 흐름과 구체적인 조선에서의 결과물을 대비하여 평가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이식론이던 자생론이던 혹은 제3의 담론을 제시하던 간에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이는 1945년 이전 한국 대중음악 DB구축의 필수적인 이유이다.